

카운터테너 이동규

# 여성보다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

여성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청년이 있다. 지난 1월 말,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비롯해 5개 부문을 수상한 카운터테너 이동규. 콩쿠르 이후 계속 유럽에 머문 그와 주고받은 메일과 전화 한 통의 기록. 에디터 유소라 사진 제공 피닉스 엔터테인먼트(529-3529)



캐나다 CBC 방송에서 “세계 3대 카운터테너, 가장 주목할 만한 유망주”라고 격찬을 받은 이동규에게 카운터테너의 세계를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영화 <파리넬리(Farinelli: Il Castrato)>였다. 학과 선택으로 고민하던 평범한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본 영화 <파리넬리> 속 주인공 공이 부른 헨델의 ‘올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는 그의 숨을 멎게 했고 곧장 음대 진학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긴장한 남자가 높고 고운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선명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보이 소프라노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변성기가 지나도 어릴 때의 미성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고운 목소리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어요. 카운터테너가 있다는 걸 몰랐던 저는 심지어 여장을 하고 미성으로 노래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지요. 영화 <파리넬리>가 미성으로 노래하는 데 굳이 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영화를 본 후 그는 곧장 레코드점으로 달려가 <파리넬리>의 OST를 구입했고, 그것이 카운터테너 이동규가 산 첫 번째 클래식 음반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간 이후 간간이 합창부 활동을 한 것을 제외하곤 음악 활동을 하지 않은 그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오디션은 만만치 않은 난관이었다. 선명회 합창단 시절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그의 성대가 잊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비싼 레슨비를 집에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그는 카운터테너의 음반을 들으며 혼자 독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대학에 입학했고, 그 학교에 입학한 첫 번째 카운터테너였기에 교수들조차 그에게 어떤 배역을 줘야 하는지 난감해했다. 베이스 파트만 교육시키는 교수들에게 그는 카운터테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고 싶은 배역을 찾아자청했다.

“카운터테너는 주로 헨델이나 바흐 등 바로크 시대 음악을 부르지만, 저는 카운터테너의 레퍼토리를 더욱 넓히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시적 해석이 필요한 슈만이나 슈베르트 등의 로맨틱한 가곡을 부르는 걸 좋아해요. 가곡의 시적인 가사를 해석하다 보면 감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느끼죠.”

지난 프란시스 비냐스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그가 최종 진출자 중 유일하게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와 가곡을 부른 사실은 카운터테너가 가진 제한성에 구애받지 않는 그의 적극성을 보여준다.

프란시스 비냐스 콩쿠르 이후 그에게는 오디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큰 무대에서 공연 기회가 들어온다. 하지만 프란시스 비냐스 콩쿠르의 화려한 성적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의 최연소 입상 경력, 뮤지카 사크라(종교음악)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 1위 기록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그의 이력으로 스물 일곱살 카운터테너 이동규를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비교적 어려운 바흐 음악에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고, 어린 나이 때문에 아직 맡지 못하는 큰 역할을 나이 들면 꼭 맡고 싶다는 이 욕심 많은 청년에게는 말이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유난히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낮은 모국에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한국 대중에게 헨델의 음악이 ‘올게 하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어요.”

나이에 비해 순수한 것 같은 천진함과 나이에 비해 성숙한 것 같은 조숙함을 동시에 가진 예의 바른 청년, 이동규.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3월에는 통영음악축제를 통해, 그리고 5월에는 LG아트센터에서 듀엣 공연으로 국내에서도 들을 수 있다니 다행이지 않은가. ☺